

“헬기사격 증언 美 목사에 전두환 격노”

5·18 관련 보안사 생산 문서 주요 내용

“군 장비 알지도 못하면서 횡설수설...대응책 지시” 프로야구 일정 관여·문화콘텐츠 제작 방해 공작도

5일 공개된 5·18 관련 보안사 문건은 당시 계엄군 진압 작전, 헬기사격 등 진실 왜곡·은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천주교 광주대교구를 중심으로 제기된 헬기 사격 증언에 대응하는 전두환 측과 군부대의 모습이 담겼다.

1989년 3월9일 '광주사태시 무장헬기 기총소사 증언 동정' 문서에는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장헬기에 작전 명령이 하달돼 기총소사와 사실임을 증명하는 양심선언이 있었다는 설이 광주교구 조비오 신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는 방안도 제안했다.

'광주 사태 소탕 작전회의 동정' A4 3장 분량의 문서에는 군 수뇌부 10여명이 모여 시위 진압을 위해 무력사용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80.5.23 오전 9시-11시 총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논의는 '총장, 차장, G-2, 3, 4부장, 전략 기획부장, 보급운영처장, 2군 사령관, 2군 G-3'가 참석했다고 쓰여 있다. 이어 '토의 동정'을 통해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2군 사령관, 광주 지역에 대한 공격 시도(구체안 미상). 참석자 대부분 찬

동"이라고 표시돼 있다. 총장은 "(차장의 반론을 듣고) 1차 소탕후 광주시 외곽을 완전봉쇄 고립시켜 폭도들의 심경변화를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적혀있다.

유가족 단체·재야 인사의 동향을 파악, 진상규명 활동을 축소 또는 편향하려는 시도도 했다.

'문제단체 대정부투쟁 약화 자원의 공작활동 전개' 문건에는 5·18 피해자 단체를 '문제단체'로 규정, 왜곡 공작을 획책했다. 5·18 행불자 인정자 가족회(회원 32명·1989년 7월 결성)를 무력화 또는 왜해하기 위한 전략은 치밀하게 짜여졌다. 전략으로 회장 및 회원 순화(1998.2.26-4.18), 죽마고우 관계인 협조자 발굴 설득, 은근유족회장 통한 조직원 회유, 정부의 자유노력·보상법안 집중홍보 등이 언급됐다.

심지어 광주 프로야구 행사에 대한 직접 개입, 특히 5·18 관련 문화 콘텐츠 제작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공작도 있었다.

5·18을 소재로 한 영화 '꽃잎'을 김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동향 분석과 더불어 5·18 관련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사전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지회 등이 당시 제작 추진 중이던 5·18 영화에 대해서는 '순수 시민군 시각에서 5·18을 조명하는 영화'라면서 거액의 제작비 국민 모금 활동 동향과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전했다.

1986년 5월 광주 프로야구 관람객들이 5·17 전야제 및 5·18 추모제에 결합할 것을 우려해 경기 장소를 전주로 옮기려 했고, 실제로 18일 경기는 전주에서 열리고 경기 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 진행되기도 했다. 17일 광주 경기는 심판에게 경기 진행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했다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종민기자



대한신당 최경환·박지원·장병완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 보안사 문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시장, 소상공인 권익 보호 '목민상' 영예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수여...광주상생카드 등 맞춤형 정책 호평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9 목민상 시상식'에서 공역단체장으로는 최초로 목민상을 수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부터 매년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과 경쟁력 제고에 공헌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의원

을 선정해 '목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이 시장은 광주상생카드, 빚고을 소상공인 지킴이 등 광주만의 독특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광주시가 추진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광주상생카드 성공적 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빚고을 소상공인 지킴이 사업' ▲민생경제 현장 투어 등 소상공인과의 긴밀한 소통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광주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통용되는 '광주상생카드'는 출시 8개월 만에 626억원이 발행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빚고을 소상공인 지킴이'는 지역 청년이 소상공인 업소를 매일 방문해 자금, 교육, 고용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점수를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올해 민생 현장투어, 중소기업 경제 현장투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행보에 적극 나섰다. /김종민기자

총선 브리핑

이병훈 전 문화경제부시장 출판기념회 연다

7일 조선대 해오름관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7일 오후 3시30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더불어 사는 경제 나누는 일자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가수 유열의 사회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민들과 Q&A를 통해 30여분간 토크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사는 경제 나누는 일자리'는 총 4장으로 구성했는데, 1장은 '새로운



경제-광주형일자리'로 일자리 문제를 담고, 2장 골목경제 '신의 한 수'에서는 골목길의 창조적 혁신을 일깨울 예정이다. 3장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는 4차산업 혁명시대의 일자리, 4장 '정치를 바꾸자'로 정치에 대한 저자의 소신과 생각을 이야기한다.

이 전 부시장은 "책을 통해 광주형일 자리를 비롯한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느꼈던 소회와 골목경제 살리기 방안, 미래산업과 같은 현안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박시중 전 행정관, 광산을 출마 공식선언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약속

박시중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이 5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산을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 전 행정관은 "광주와 호남의 정치혁명을 위해 누군가는 태풍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나"며 "그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결심했다"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광주 민주당이 과감한 인적혁신을 선도하자"며 "젊은 세대, 미래형 인재, 혁신적 인물들을 중용할 때 '당'은 승리를, 시민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행정관은 "김대중, 문재인, 두



분 대통령과의 인연 속에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함께했으니 여전히 적폐는 끈질기다"며 "이제 저는 정치를 혁신하는 것이 제 운명적 소임이라 믿고, 이를 받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에 투자 인센티브 재량권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통한 기업유치로 광주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도전자금, 청년창업협동조합 등을 도입해 실패를 포용할 수 있는 지역 청년 희망창업 정책 추진 ▲미래 산업사회의 핵심인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 등을 발표했다. /김다이지자

신정훈 민주 나주·화순지역위원장 출마 선언

“진짜 여당의원 뽑아야 지역발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진짜 여당의원을 뽑아야 나주·화순 발전의 획기적 변화가 될 수 있다"며 4·13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나주시·도의원 합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중앙당 핵심라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책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나주의 에너지밸리, 화순의 생물의약품업을 성공시킬 정책과 능력으로 승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과거 의욕과 열정이 앞서 지역민들이 부담감을 갖는 일이 있었다"며 "부인의 시장 출마 등에 대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을 반성하고 더 나은 자세와 소명의식으로 화합과 통합의 큰 정치로 새출발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경선과 관련, 그는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을 존중한다"며 "선의의 경쟁, 당당한 승리, 원팀 민주당이라는 열린 마음으로 어느 누구와도 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기자



TOWN HALL 727
핵심인사

건축높이 95m

층고 3m - 25m / 31m / 33m / 36m
건축면적 1만 5,200평 / 층주차대수 530대



하워드존슨 광주 특급호텔

이제 5성급 특급호텔에 투자, 소유하십시오

세계적인 호텔 그룹 윈덤(WYNDHAM)의 프리미엄급 대표브랜드와 대한토지신탁의 신뢰로 만나는 하워드존슨 광주호텔이 2022년 10월 타운홀에 들어섭니다. 위탁 임대투자과 실거주를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투자 KEY POINT 7

- 1 ▶ 상무지구 랜드마크·최고높이·최대규모(건축높이 95m)
- 2 ▶ 분양가의 5% 확정 수익 보장 전금원리시 확정수익금 1년, 2년 분 차등적 선지급
- 3 ▶ 분양자 2년간 객실 30% 할인
- 4 ▶ 매주 월요일 분양자(입주자 포함) 롯데시네마 50% 할인
- 5 ▶ 대형 상설뷔페 50%할인(분양자, 입주자)
- 6 ▶ 전 객실 스타일러 무상설치, IoT시스템, 풀퍼니스드 시스템
- 7 ▶ 중도금 2차분 선이자 지급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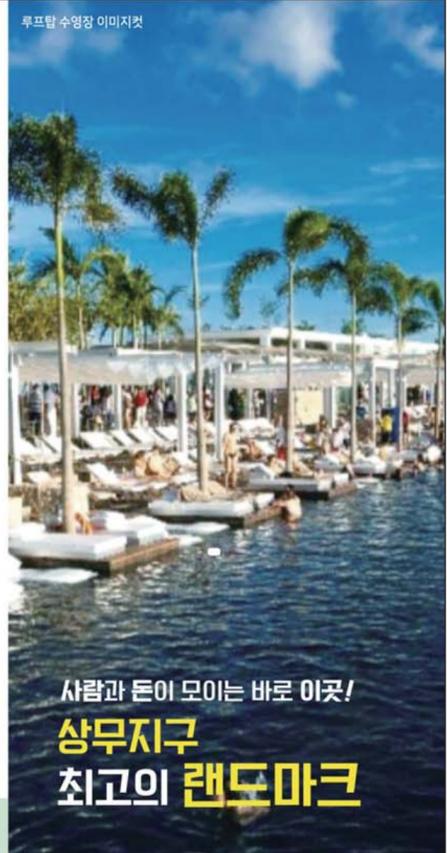
잔금 40% 대출보장

확정수익보장 + 2년 계약 + 8년 재연장!

생활형숙박 : 건축법 적용에 의한
1가구 2주택 미포함!

위탁시 확정수익금
- 2년 매월 5% - 1년분 선지급 4.5%
- 2년분 선지급 4%

전문상담 : 010-6517-3355



루프탑 수영장 이미지컷

사람과 돈이 모이는 바로 이곳!

상무지구 최고의 랜드마크

상무 타운홀727 레지던스 총727호실 상담문의 1899-0137